



도넛볼 정기 연주회 포스터, 도넛볼 제공

한국가곡의 향연 속으로 제주 전국체전 성공 기원 도넛볼 네 번째 정기 공연

제주 성악가들이 10월 제주 전국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무대를 펼친다. 오는 8일 오후 7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리는 성악 단체 '도넛볼'의 제4회 정기 연주회다.

제주대 박웅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 공연은 '2026 전국체전 성공 기원을 위한 한국가곡의 향연'이란 제목을 달았다. 청중들에게 친숙한 우리 가곡으로 전국체전이 내건 화합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제주대 출신 성악가들로 꾸민 '도넛볼'은 이날 전국체전의 정신을 음악적 서사로 엮은 무대를 준비했다. 출발과 다짐, 제주의 풍경과 환대, 연대와 하나됨, 축제의 피날레 등 4부로 나눠 그 주제에 맞는 가곡을 솔로, 중창, 합창으로 선사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신고산타령' '청산에 살리라' '보리밭' '내 마음의 강물' '나 하나 꽃피어' '아리 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아름다운 나라' 등으로 구성했다.

출연진은 30여 명에 이른다.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선율이 함께한다. 주최 측은 "제주의 흙과 바람 속에서 자라난 목소리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빛줄기가 되는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넛볼'은 옛 등대를 부르던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다. 그 의미처럼 '음악적 등대'가 되어 클래식 선율의 깊고 진실한 울림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미술인들이 읽은 제주의 오늘

제주미술협회 85회 회원전
중진에서 신인까지 229명
각자가 마주한 제주 등 담아
3~8일 문예회관 1~3전시실

중진에서 신인까지 제주 미술인들의 시선에 제주가 머문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제주미술협회)의 제85회 회원전이다.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제주문예회관 1~3전시실 전관.

제주미술협회 회원전은 현재 제주 미술의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시다. 이번에는 '제주의 오늘, 서로 다른 시선'이란 이름을 붙였다.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인들이 마주하는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 삶의 풍경이 어떻게 해석되고 동시대 예술로 확장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미술협회 측은 전시 제목에 있는 '오늘'이 단순히 현재의 시간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제주 사회와 환경 속에서 예술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기록하며,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작품으로 꺼내놓는 의미가 있다고



박성진의 '역새'.

제주미술협회 제공

했다.

참여 작가들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판화, 디자인, 공예,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등 229명에 이른다. 신작을 중심으로 바다와 오름, 돌과 바람 등 섬이 품은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을 묻는 작품을 선보인다. 단일한 이미지가 아닌 다양한 얼굴을 지닌 제주가 그곳에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전시 소식

▷김유한 개인전 '공간의 중(重)'
(류)들=제주문화예술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새창리움 기획의 중견 작가 릴레이 전시 중 세 번째. 상업 가구 제작자이기도 한 작가는 짧은 소설 한 편과 설치물을 통해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제목 안에 있는 '중류'와 '중'은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의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는 6일까지 제주시 동문로 아트스페이스 새창리움(오후 1~7시, 월요일 휴관).

▷현은주 개인전 '매핑(MAPPING): 자파리 도해(圖解)'=고향 세화1리의 잊혀 가는 지명들을 담아냈다. 전시 기간 매일 오전 11~

오후 2시엔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펼쳐진다. 작가는 작업노트에서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파리한다'고 부른다"며 "이번 전시는 고향 마을을 도해하며 나의 근원을 짚어보는 시도이자, 다음 '자파리'를 지속하기 위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오는 11일까지 제주시 관덕로 갤러리 세이브.

▷제주현대미술관 1층 미술관 김수민의 '데이터의 변주'=위성 이 찍은 좌표와 정보는 변하지 않는 완벽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연은 매 순간 달라진다. 작품 속 화자는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찾아가며 데이터 속에서는 말라 있던 하천에 물이 흐르거나 새로운 물길에 생긴 모습을 발견한다. 작가는 데이터와 현실의 자연

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틈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역동적인 '변주'로 바라본다. 전시는 2027년 3월 14일까지. 1층 미술관은 미술관 야외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곳이다.

▷제주4·3평화재단 기획전 '민주항쟁의 등불, 윤상원'=윤상원은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하성훈 작가의 연작을 통해 윤상원의 삶과 1980년 5월 광주의 시간을 예술적 시선으로 되짚어보고, 그 속에 담긴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살펴본다. 이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

10월 무대에 전통의 향기 흐른다

도문화진흥원 공연 두 편
3일 풍경소리 창작 '숨골...'
24일엔 남도국악원 '씻김굿'

10월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마련한 두 편의 전통 공연이 잇따른다. 우리음악 앙상블 풍경소리의 창작 공연 '숨골-숨 쉬는 섬 제주'와 국립남도국악원의 '씻김굿'이다.

풍경소리의 '숨골...'은 2026 공연장상주육성지원사업으로 창작했다. 미디어아트와 현대적 감각의 국악이 어우러진다.

이 작품은 제목이 말해주듯 화산섬 제주의 숨골을 모티프로 제주 자연의 순환과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동서양 악기의 어울림 속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그려낸다. 3일 오후 7시30분 대극장. 무료.

'씻김굿'은 제주도민의 아픈 기억을 씻어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아 초청했다. 서남해안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천도굿인 '씻김굿'은 죽음에 대한 소박한 의례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남도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굿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위로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전해준다. 공연 일정은 24일 오후 5시 대극장. 관람료 1만 5000원. 예매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전선희기자



국립남도국악원의 '씻김굿'.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제공

토론 대신 노래... 한글날 제주어 포럼

제주학연구센터 '눌' 변신
제주어 성악·밴드 합창 등

제주어를 다른 토론 대신 노래가 흐른다. 제주도와 제주학연구센터가 마련한 2026 제주어 포럼 '눌'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제주어를 노래하다'란 이름으로 제주어 포럼 '눌'을 진행한다. 2020년 이후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논의해 온 대표적인 포럼인데 이번엔 학술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과 관광객이 노랫말을 통해 일상에서 제주어를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중적 문화 행사로 기획했다.

출연진은 (사)제주어보전회 소속 제주어가온누리합창단, 제주어 테너 강창오, 제주어 가수 양정원,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훈디놀레,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 사우스카니발 등이 다. 귀에 익은 외국 가곡을 제주어로 바꿔 들려주거나 자작곡 공연을 펼치며 제주어의 가치를 나눈다.

주최 측은 제주어 노랫말 퀴즈쇼, 제주 민요 '노영나영' 함께 부르기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관람객에게 공연 곡목의 제주어 가사와 표준어 대역을 수록한 '제주어 노래 가사집'도 제공한다.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 참고.

전선희기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남녕♥♥♥

제27회 남녕인 어울림마당

일시 2026년 10월 3일(토) 오전 11시

개회식 11:00~11:30 ※ 등록 및 이벤트 오전 9시~

장소 모교 체육관

사무국 ☎ 064) 744-1986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제27회 남녕인 어울림마당"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제28대 남녕고등학교 총동문회

대 회 장 강 승 우 (총동문회장, 3회)

집행위원장 김 남 주 (20회 동창회장)

총동문회 임원진 명단

총동문회장 강 승 우 (3회)	체육부회장 박 경 범 (4회)	장학부회장 고 명 순 (4회)
직 전 회 장 양 영 석 (3회)	조직부회장 문 석 찬 (4회)	감 사 김 제 춘 (4회)
수석부회장 정 덕 진 (4회)	홍보부회장 김 민 석 (3회)	감 사 홍 성 호 (8회)
여성부회장 김 호 심 (3회)	사업부회장 김 학 진 (5회)	사 무 국 장 김 정 숙 (3회)
재무부회장 홍 수 미 (6회)	문화부회장 현 해 경 (4회)	천마회회장 박 예 지 (35회)
기획부회장 강 문 석 (7회)		

재경임원명단

재경동문회장 강 성 욱 (3회)
재경동문감사 김 종 범 (3회)
재경동문부회장 강 주 배 (4회)
재경동문여부회장 김 은 영 (4회)
재경천마회회장 김 민 수 (34회)

기수별 동창회장

1회 동창회장 김 해 영	7회 동창회장 송 성 우	15회 동창회장 여 중 화
2회 동창회장 강 은 실	8회 동창회장 안 현 준	17회 동창회장 이 동 훈
3회 동창회장 현 창 석	10회 동창회장 진 성 민	18회 동창회장 박 성 언
4회 동창회장 문 석 찬	11회 동창회장 박 수 은	19회 동창회장 부 수 욱
5회 동창회장 이 승 철	12회 동창회장 양 승 우	20회 동창회장 김 남 주
6회 동창회장 강 재 영	13회 동창회장 공 대 인	

주최 : 제28대 남녕고등학교 총동문회 | 주관 : 남녕고등학교 제 20회 동창회 | 후원 : 학교법인 남녕학원, 남녕고등학교, 남녕고 운영위원회, 남녕고 학부모회